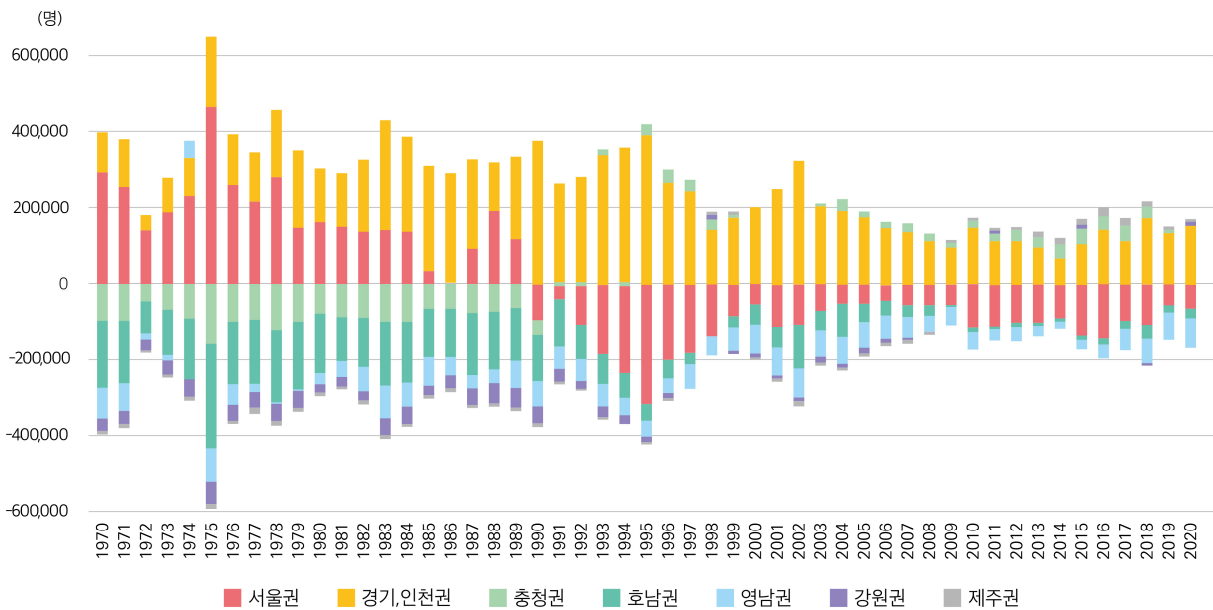


1. 인문계열

제시문 및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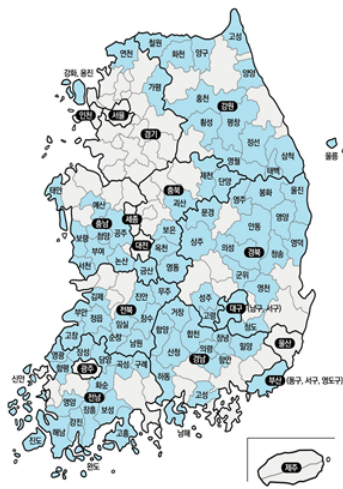
가

지방소멸은 인구 변화와 비도시 지역 쇠퇴의 불균형에 대한 위협적 경고이다. 일본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방소멸’은 자극적 용어 자체가 지닌 파급력과 함께 한국의 지역 격차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국토의 한 지역이 날아가거나 폭 꺼지듯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0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지역이 사라져 없어질 수 있을까? 다만, 지방의 인구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결과, 서울과 울산, 그리고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등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소수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의 퇴조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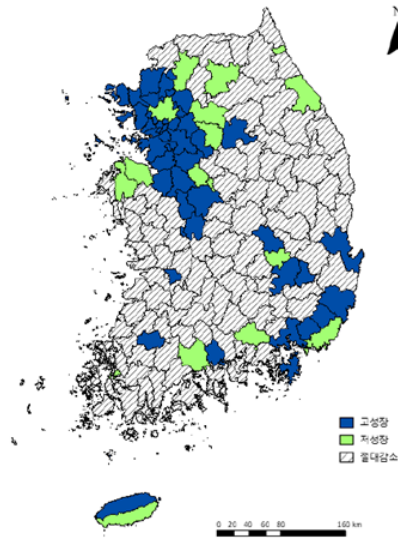


권역별 순이동 추이 1970~2020(인구이동통계연보)

위 그래프의 연도별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 20세기 후반까지 서울과 경기·인천권으로의 순이동이 집중하였고, 이후 서울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경기·인천의 인구 이입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신산업 입지와 신도시 개발 등 정책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두 지도는 행안부가 지정한 89개의 인구 감소 관심 시군지역과 1975년~2020년간 지역별 인구 이동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두 지도에서 나타내는 현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인구 분포의 왜곡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다해도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최소한의 하부 구조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이 소멸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소멸되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지방소멸위기지역, 2020(행안부)



인구변화 1975-2020, (통계청)

대도시, 중핵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의 증대와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는 지방소멸 위험성의 주요인이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평균 수명의 증대와 함께, 출산율 감소가 고령화를 가속시킨다. 저출산은 곧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고,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유대감이 위축되어 사회적 활동도 저하된다.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분배에도 영향을 주어 생활 편익과 질이 저하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욱 심화된 지역간 격차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행안부와 중기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한시적이지 않도록 지속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현 가능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

지역의 매력도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메니티(amenity)라는 '매력성'의 요소와 함께 사회적 연계성과 견고함을 형성한다. 지방 주민들의 이주 행태는 근린의 매력성, 도시적 매력성, 그리고 환경의 매력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근린의 매력성은 의료서비스, 주택가격, 교육의 질(초·중·고등학교의 질), 범죄 예방 등과 관련이 있고, 도시적 매력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잘 갖추어진 상업시설, 대학과 공공서비스의 질, 도서관, 극장, 스포츠 시설 등 문화시설로 이루어진다. 또한 환경적 매력성은 대기의 질, 상수도 수질,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특성으로 작용하며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매력도는 그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되어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장, 인구 유입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의 문화 또는 생활 양식 등이 기반이 된 지역의 매력성은 주민이 중심이 된 관련자들과의 협치에 의해 강화된다.

한국의 인구 분배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서울 대도시권과 이외 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지방에서 성장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강력하게 형성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그들의 우수한 능력을 기여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애항심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이 잘 구축된 지역을 향해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고장을 공동화시킨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역 출신의 인재와 청년들이 떠난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이루어 공동체 문화 상생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 상황과 복구 등의 상황에서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자체의 세수 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2016년부터는 기업도 기부할 수 있도록 '기업형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하며 최대 9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은 2021년 고향기부의 모금, 접수, 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시행령을 제정, 2023년부터 자치정부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자기 고향이나 애착이 가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지방으로부터는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기부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인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과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 8천원을 합해 연말에 24만 8천원을 공제받고 100만원의 30%인 3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덤으로 기부로 기여한 금지도 생긴다. 이제 막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고향세 모금이 시행된 이후 지역에 기금이 투입되면 지역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호하다. 또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 누가 기부를 하려는지 기부 참여에 대한 행태도 모호하다. 지자체의 기존 사업의 예산과 고향세 기금이 어떻게 구분되어 활용될지도 뚜렷치 않다. 기본적인 답례품을 종합정보 시스템에 구축해 놓아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금을 예상하며 지자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금액별 핵심 답례품은 어떻게 계획할까? 자칫 도시적 상업시설물의 입지와 대형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기금을 충당하면 이후 지역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고향에 대한 추억과 자긍심으로 애향심이 발현되고, 매력적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유도되어야 고향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부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다

프랑스 파리는 1970년대까지는 도심 내 대형 상업건물이 입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 상업기능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점한 이후 상업가로에는 상업기능의 고급화, 체인화가 현저히 늘어나는 반면에 소규모 상점들이 감소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의한 독점적 잠식이 나타나면서 상권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상권의 활력도 점차 부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파리는 2006년 파리도시계획을 수립하여 400여개 특정가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호상업가로로 지정하였다. 파리는 SEMAEST라는 기구를 통해 보호상업가로 안의 상가를 매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하나 경쟁력이 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소상공인과 수공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였다.

독일 라인강변 인구 100만의 쾰른시 서부에 위치한 에렌펠트는 1970년대까지 슬럼화된 지역으로 노동자 계층의 주거지였으나, 2009년 도시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젊은 계층이 선호하는 커뮤니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 개선에 따라 주택 임대료가 급등하였고, 주거지역의 상업화 양상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주민들은 에렌펠트 공동체 정원을 만들었고, 이동 가능한 상자에 식물을 재배하여 지역 주민 간 공유경제를 실천하였다. 이 운동은 누구나 건축하고 살 수 있는 프로젝트인 레이첼 건축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25,000유로에 25m² 규모의 주택모듈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공동주거단지를 지향한다. 레이첼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젊은 건축가들의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정주성을 보호하면서도 도시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지방소멸'의 용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고향사랑기부제' 적용이 한국의 지속적인 국토 균형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제시문 <다>에 밑줄친 ㉠이 가리키는 개념과 의미, 발생 원인을 서술하고, ㉠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순서대로 논술하시오. (800~1000자)